

## 밴쿠버, 건축물 부문 탄소 절감 방안 담은 'Climate Emergency Action Plan' 승인

<https://vancouver.ca/green-vancouver/vancouver-climate-emergency.aspx>

밴쿠버 시의회가 'Climate Emergency Action Plan'을 승인하고, 2030년까지 탄소 오염을 50%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. 특히 계획에서는 도시의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차량(39%), 건축물(54%)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탄소 오염을 줄일 것을 명시하였다. 건축물과 관련된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'건축물 난방 시스템의 탄소제로화(Zero Emission) 추진', '저탄소 건축'을 제시하였다.

### 건축물 난방 시스템의 탄소제로화 추진

밴쿠버시는 난방과 온수를 만드는 데 쓰이는 에너지원을 천연가스에서 전기, 재생 천연가스로 바꿈으로써 건축물 운영 시 발생하는 탄소 오염의 4분의 3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. 먼저 건축물 조성 시 단열 처리, 단열창 설치, 기밀(air-tightness) 성능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. 다음으로 천연가스 시스템을 GHP(electric heat pump)로 교체하는데, GHP는 천연가스 시스템과 비교해 약 300%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추진 전략과 관련해 시는 ▲탄소 오염 한계 설정 및 규제 합리화 ▲관련 산업적 역량 구축 ▲초기 도입 건축주에 대한 지원 ▲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### 저탄소 건축

시는 콘크리트, 금속,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제조, 조립, 교체,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오염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. ▲보다 효율적으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▲기존 건축물과 건축자재의 재사용 ▲목재를 활용한 건축 확대 ▲저탄소 혼합 콘크리트 활용 ▲디젤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건설 현장에 전력 공급 ▲스프레이폼(spray foam) 대신 저탄소 단열재 사용 ▲건축물에 적은 주차공간 조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꼽았다.

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▲신축 건물에 대한 탄소 오염 제한치 설정 ▲신축 건물에 저탄소 건축재를 더 싸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▲신축 건물에 저탄소 건축재를 활용하는 건축주에 대한 지원 ▲건축물의 저탄소 계획 및 전략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.

©shutterstock



밴쿠버 시내 스카이라인